

해외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현황

황 현 정(미래전략개발부, hhj03@kdb.co.kr)

- ◆ 일본 DBJ, 프랑스 CDC, 독일 KfW 등 해외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여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, 다양한 금융프로그램과 그린본드 발행 등을 통해 기후 및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
- ◆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금융 분야에서 정책금융기관의 관심과 역할이 커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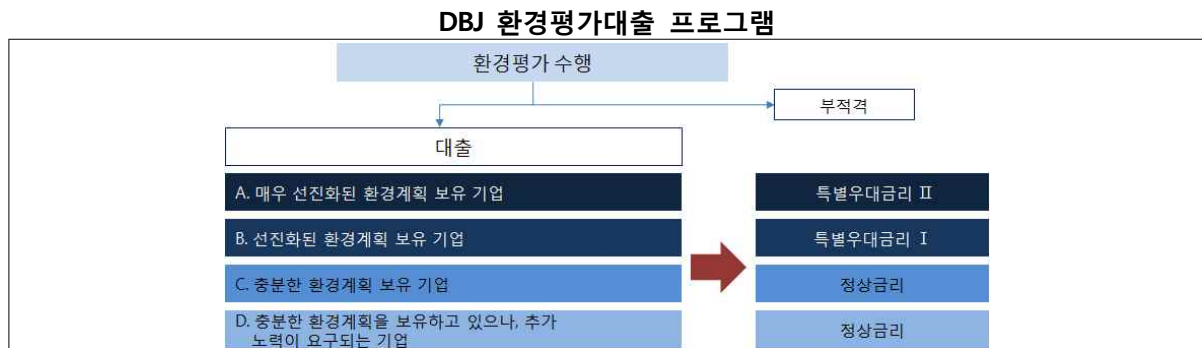
□ 해외 주요국들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금융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

- 일본 DBJ, 프랑스 CDC, 독일 KfW 등 주요국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여 경영계획에 반영하고,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
- 미국, 영국, 호주 등 정책금융기관이나 국내 그린인프라에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 그린뱅크*를 설립하여 기후금융 활성화 도모
 - *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 효율 및 기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 하는 공공 또는 준공공 금융기관

□ (DBJ) 제3차 중기 경영계획('14.4~'17.3)의 4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인프라 및 에너지를 선정하였으며 환경평가대출 프로그램과 그린빌딩 인증제 등을 시행 중

- (기관개요) '51년 설립된 일본개발은행의 후신으로 일본정부가 지분 100%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 투융자를 통한 안정적인 장기금융 제공이 설립 목적
 - '14년 제3차 중기 경영계획의 4대 전략분야를 ① 성장지원, ② 인프라 및 에너지, ③ 지역경제 활성화, ④ 사회안전망 강화로 선정
 - '01.6월 일본은행 중 처음으로 UNEP FI 성명서*에 서명하였으며, '02년부터 환경관련 정책을 추진해오며 '02.11월 ISO 14001 인증**을 획득
 - * 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'지속가능한 발전'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형성됨에 따라 선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UNEP Financial Initiative가 설립되었으며, 참여기관들은 '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명서'에 서명
 - ** ISO(국제표준화기구)에서 '96년 제정한 환경경영(환경방침, 추진계획, 실행과 시정조치, 경영자 검토, 지속적 개선활동 등)에 대한 국제 인증

- (주요 프로그램) '04년 환경평가대출 프로그램, '11년 그린빌딩 인증제 등을 통해 친환경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, '15년에는 지속가능발전채권을 발행
 - (환경평가대출 프로그램) 기업에 환경평점을 부여하여 동 점수에 따라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등 금융조건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으로, '16.3월말 현재 총 525개사에 대하여 954억엔 규모의 대출 실행
 - (그린빌딩 인증제) 환경적,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JREI(일본부동산연구원)와 협력하여 5단계의 인증을 부여하고, 부동산 개발, 리모델링 및 기타 활동에 대하여 대출·투자 지원
 - (지속가능발전채권) '14년 그린본드 발행에 이어 '15년과 '16년 지속가능발전채권을 발행하여 환경평가대출 프로그램과 여타 대출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



자료 : DBJ 홈페이지

□ (CDC) '에너지 및 생태적 전환'을 4대 이행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, '15년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후 관련 활동 강화

- (기관개요) 1816년 설립된 프랑스 정부의 100% 소유 국영은행으로 정식명칭은 예금공탁공고(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)
 - 4대 이행목표로 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토 개혁 및 개발 프로젝트 참여 (territorial transition), ② 에너지 및 생태적 전환 지원(ecological and energy transition), ③ 디지털 경제 발전(digital transition), ④ 공생을 위한 사회적 화합 (demographic and social transition)을 선정
- (주요 프로그램 및 전략) 장기투자자로서 투자결정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기후리스크 및 그린경제 기여도를 고려
 - '14~'17년 '에너지 및 생태적 전환'을 위한 자금지원 계획이 총 150억 유로로, 100억 유로는 지방정부 및 사회주택공사를 통한 대출 형식, 약 40억 유로는 자회사인 Bpifrance*을 통한 대출 형식으로 지원

- '20년까지 주식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% 감축, '30년까지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에너지 소비량을 38% 절감 계획
- 수입의 20% 이상이 발전용 석탄 채굴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 및 채권 직접투자를 금지하고,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석탄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금지
- 주식투자 기업에 대하여 중기 환경 및 에너지 전략, '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수립 등을 요구

* 프랑스 정부와 CDC가 지분을 각각 50%씩 소유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

- (기타) '에너지 및 생태적 전환' 관련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기후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, '17년 3월 5억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

CDC의 환경관련 자회사

기관명	개요
CDC Biodiversité	•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목적으로 '08년 설립 • 40개의 생태보상 프로젝트에 참여, 5,000ha 토지의 보존 및 복원에 기여
Société Forestière	• '66년 CDC의 임업 관련 투자개발, 운영을 위하여 설립 • 프랑스 기관투자자, 은행 및 보험사 대부분의 임업자산 관리(운영 규모 270,000ha)
Novethic	• '01년 설립된 지속가능금융 관련 리서치·교육·미디어 전문기관 • 금융상품에 Novethic SRI label, Green Fund label 등을 도입, Carbon Risk ¹⁾ 운영
I4CE ²⁾	• 프랑스 및 전세계 기후·에너지정책 관련 경제이슈를 분석하는 think tank

주 : 1. 지구온난화 관련 정부, 투자자, 기업의 역할을 교육하는 웹 어플리케이션, 2. Institute for Climate Economics
 자료 : CDC 홈페이지

□ (KfW) '기후변화 및 환경'을 중요한 사회경제적 트렌드로 인식하여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그린본드 발행에 적극적

- (기관개요) 독일 연방정부가 80%, 주정부가 20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개발은행으로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후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설립됐으며, 1950년대 후반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
 - 중요한 사회경제적 트렌드로 ① 기후변화 및 환경, ② 세계화, ③ 디지털화와 혁신, ④ 사회변화를 인식하여, KfW의 기본임무인 개발금융을 동 부분에 집중
- (주요 프로그램)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저리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,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
 - '15년 신재생에너지 지원, 에너지효율성 향상,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총 정책 자금 약정액(793억유로)의 37%인 295억유로를 '기후변화 및 환경' 분야에 지원

KfW의 환경 관련 금융프로그램

프로그램명	개요
환경보호 프로그램	• 환경보호방안에 대하여 프로젝트당 천만유로까지 대출하며, 3년간 상환유예, 100% 지급, 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등이 특징
에너지효율성 프로그램	• 국내외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25백만 유로까지 대출 • 생산설비 및 프로세스/폐열(waste heat)/건설 및 재설비 분야 대상
신디케이티드론 에너지 및 환경	• 은행 컨소시엄을 통한 직접대출로 KfW가 대출금액의 50%까지 지원 • 독일내 에너지 효율성 향상, 에너지 보존, 전력 생산보관전달,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
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	•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 대상 • 표준 프로그램의 경우 5천만 유로까지 20년간 저리대출 지원 •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열을 생산하는 대규모 발전소에 대하여 천만유로까지, 장기, 저리자금 대출
해상풍력발전 프로그램	•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북해와 발틱해 해안기준 12마일 이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 대상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그램

자료 : KfW 홈페이지

- (그린본드 발행) 기후변화 대응,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및 시장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'14년부터 그린본드 발행 프로그램인 'Green Bond-Made by KfW'를 시행
 - 유로, 달러 외에 스웨덴 크로나, 호주 달러, 영국 파운드 등 다양한 통화로 발행
 - '15년 전체 그린본드 발행규모는 37억 유로
 - 그린본드의 직접 발행 외에도 다른 그린본드 발행기관의 기후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'15년 4월 이후 그린본드를 매입, '15년말 기준 매입규모가 280백만 유로에 달함

□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금융 분야에서 정책금융기관의 관심과 역할이 커질 전망

-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 계획 등 신산업 육성정책, 신기후체제* 출범에 대한 대응 등으로 향후 기후금융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
 - *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,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협약
- 친환경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불확실성 및 부족한 투자경험 등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영역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
 - 특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